



TOMATO COMPANY

미제레레

가엾게 여기소서

토마토출판사 원천 IP 소개



WWW.TOMATO4U.COM



CONTENTS

회사 소개 01

캐릭터 소개 03

2차 사업화 장르 05

IP 소개 02

주요 타깃 04

주요 IP 라인업 06

1

회사 소개

TOMATO COMPANY



토마토출판사는 문학, 인문, 자기계발, 경제경영, 어학, 유아동 도서 등 다양한 책들을 출간하는 종합 출판사입니다. **세대와 장르를 뛰어넘는 언어와 감성이 담긴 다채로운 출판 브랜드들을 통해 우리 사회를 바르고 아름다운 문화로 선도하고자 합니다.**

*2024 『내일 엄마가 죽는다면』 러시아, 중국 판권 수출

*2024 『기억을 넘어 너에게 갈게』 애니메이션화 계약 체결 //

2

IP 소개

TOMATO COMPANY



인간의 '비겁한 침묵'에서 ✨ 비롯된 불길한 재앙, 미제레레

이상하고 혐오스러운 여자, 이영음의 주변에서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불길한 죽음을 담아낸 작품이다. 영음은 녹말 이쑤시개가 아닌 것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지만, 늘 강렬한 식욕에 시달린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남자의 죽음을 목도한 후부터 기이하게도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는데... 식욕에 압도될 때마다 영음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기괴한 죽음. 대체 이 여자는 무엇일까 왜 늘 죽음의 가운데에 이 여자가 있을까.

<미제레레>는 K-오컬트의 대명사로 불리는 영화 <곡성>과 <파묘>의 뒤를 잇는 작품이자, 아름다운 여자의 치밀한 복수를 담아낸 영화 <친절한 금자씨>를 정반대로 뒤집어서 '혐오스러운 여자'의 연쇄적인 불행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3

캐릭터 소개

TOMATO COMPANY



이영음

"나는 지금 무엇이랄도 삼킬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영음은 원인 모를 병에 걸려 음식을 먹지 못하는, 깡마른 여자다. 오로지 **독말 이쑤시개**와 링거만으로 삶을 연명하고 있어서일까, 영음은 늘 식욕에 시달리며 군침을 삼킨다. 그런 영음에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모를 일이 벌어진다. **사람이 죽으면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윤 대표

"오, 주님! 잠시만요. 제가 진정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넨은 사탄이에요!"

<라이프 뷰>의 대표이자, 영음의 상사. 기자 의식은 버린 지 오래이며 오로지 돈이 최고라고 노래 부른다. 수익과 조회수를 위해서라면 가리는 일이 없다. **영음을 수상하게 생각한다.**



박 기자

"증명해 봐, 네가 지껄이는 말이 거짓이 아니란 걸. 그럼 사과할게."

<라이프 뷰>의 기자이자, 영음의 동료.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기사를 쓴다. **영음의 앙상한 몸을 가십으로 팔아 짹짹한 이익을 얻는다.** 그러나 불가해한 죽음을 맞이하고 만다.

3

캐릭터 소개

TOMATO COMPANY



천경준

"내가 우리 엄마 시체 옆에서 미친 듯이 먹는 거 봤어. 근데 난 상관 안 해. 그냥 이것만 말해. 너, 그 의사 새끼랑 무슨 사이야!"

<라이프 뷰>에 새로 온 기자. '부족한 여자'만이 자신을 사랑할 거라고 믿는다. 영음과 결혼하기로 하지만, CCTV에서 무언가를 목격하고야 만다. 그를 잠식한 공포는 서서히 의처증으로 변질된다.



홍 보살

"미련한 년. 집에 들이지 말아야 할 사람을 들여서 그래."

무당들의 무당. 온갖 사람들이 번호표를 받고 그의 집 앞에 줄지어 기다릴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있다. 홍 보살은 부적으로 지은 옷을 영음에게 입히고 위험한 방술을 쓴다. 7일간 이어진 굿판의 마지막 날, 홍 보살의 입에서 기이한 웃음소리와 함께 '새빨간 것들'이 쏟아져 나온다.



손미녀

"영음아, 너는 알잖아. 그때 그거, 개가 준 거잖아. 나 집에 돌아가기 싫어, 영음아!"

아름다운 미모와 뛰어난 재능까지 지닌 미인. 미술 공부를 위해 서울로 와서 어린 영음과 함께 자매처럼 지낸다. 물에 빠진 영음을 구하고자 목숨까지 건다. 그러나 끔찍한 사건을 겪은 뒤, 마을 사람들에게 '화냥년'이라며 손가락질받는다. 미녀는 자신의 생일날, 제 생일상을 받침대 삼아 목매달아 죽는다.

4

주요 타깃

TOMATO COMPANY

성인

- 미스터리와 호러를 좋아하는 독자의 극찬, "이래서 미스터리가 좋다"는 성인 독자의 리뷰 다수.
- 스트레스를 음식으로 해소하는 직장인에게 공감될 소재.
- 작품 특유의 첨예한 시선과 블랙 유머가 제공하는 몰입감으로 인해, 갑갑한 현실에서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다는 해방감.

청소년

- 답답한 자신의 집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마음을 대신 표현하여 주는 캐릭터가 존재하므로 깊은 감정이입에 용이.
- 입시를 하며 느끼는 절박한 감정을 주요 캐릭터에게 투영.
- 도파민을 충족시키면서 삶에 대한 메시지까지 얻을 수 있는 작품이기에 청소년에게도 매력적.



2030 여성

- 사회적인 시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기고야 마는, "마르고 싶다"는 바람.
- 그럼에도 쉽게 버릴 수 없는 "먹고 싶다"는 욕망.
- 깡마른 여자이지만, 그와 동시에 "혐오스러운" 여자로 등장하는 주인공. 이 캐릭터를 향해 느껴지는 양가적인 감정, 그리고 본능적으로 투사하게 되는 자신의 내면.

중장년층 여성과 학부모

- 아이를 가진 부모라면 마주하기 마련인 상황이 등장.
- 다양한 연령대의 인물이 등장, 그 인물들이 겪는 보편적인 사건(연애, 결혼)을 통하여 자신의 경험을 떠올릴 수 있음.

5

2차 사업화 장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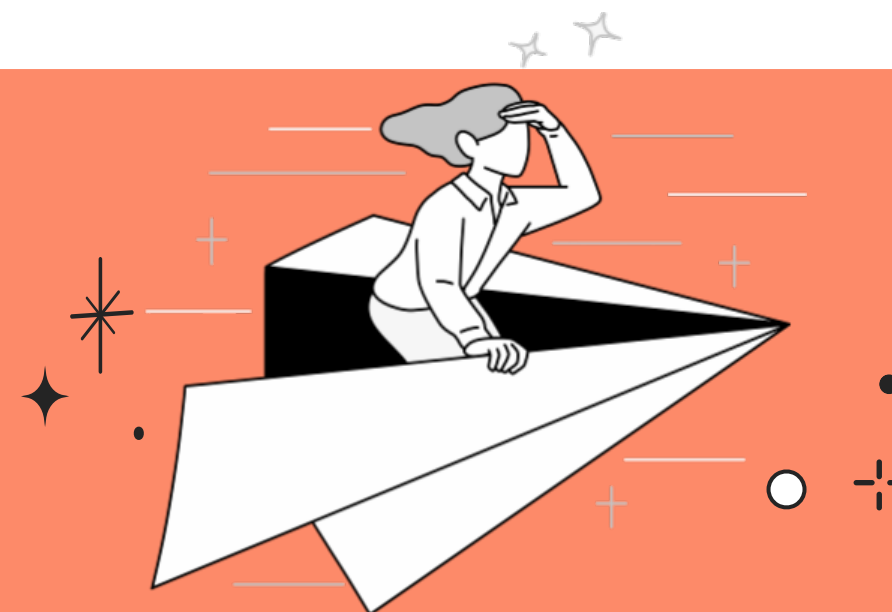
TOMATO COMPANY

드라마, 영화

OTT 영상

- 뚜렷한 **기승전결**.
- 대중을 사로잡을 수 있는 **매력적인 캐릭터**.
- 책을 덮은 뒤에도 귓가에 울리는 소리, '오독, 오독, 오도독'.
-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지는 듯한 이미지, **기괴한 죽음의 현장**.
- '식욕'과 '죽음'이 겹쳐지며 일어나는 **연쇄적인 사건**.
- 자연스러운 감정선과 일상의 **보편적인 요소**가 맞물려 진입 장벽이 낮은 작품.

<미제레레>의 시청각적 요소는 영상화를 거친다면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것입니다. 미스터리와 호러, 그리고 K-오컬트 요소까지 접목하여 **대중성과 상업성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당사는 영상 업계의 특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작품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 각색을 거치는 것에 이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작품은 모든 사업화에 열려 있으며, 다양한 형태로 전환하는 것을 기꺼이 여기고 있습니다.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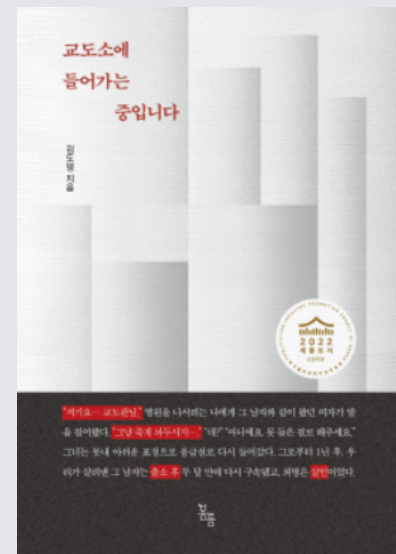
주요 원천 IP 라인업

TOMATO COMPANY



세벽

저택에서 일하며 도련님을 보필하던 '히'. 어느 날, 로자 아줌마가 싸늘한 시체로 돌아오게 되는데. 한 소녀가 일으킨 저택 방화 사건, 그 너머의 소년소녀와 세계를 그리는 성장소설.



교도소에 들어가는 중입니다

"그들은 결국 다시 돌아온다" 현직 교도관이 들려주는 진짜 교도소 이야기.



낮에는 이승에서 밤에는 저승에서

저승과 이승, 죽음과 삶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로맨스. 드라마 <도깨비>를 애청한 이들의 원픽 웹소설.



별을 삼킨 괴물

무시무시한 괴물이 밤하늘의 별을 모두 삼키고 사라졌다. 괴물은 도대체 왜 별을 삼켜 버린 걸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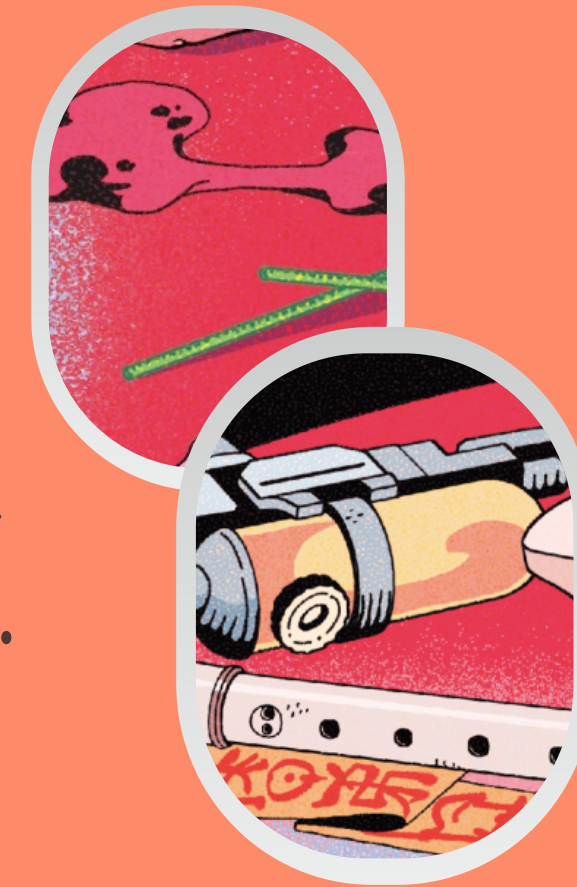
이상주의자 살인 (근간)

한국에서 내로라 하는 엘리트로 구성된 비밀 클럽. 그들이 계획한 자본주의 사회 전복 작전을 저지하고자 두 남녀가 뭉친다.



TOMATO COMPANY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토마토출판사

담당자 IP전략기획팀 성유경

T. 010.5838.4062

E. sotry@tomato4u.com